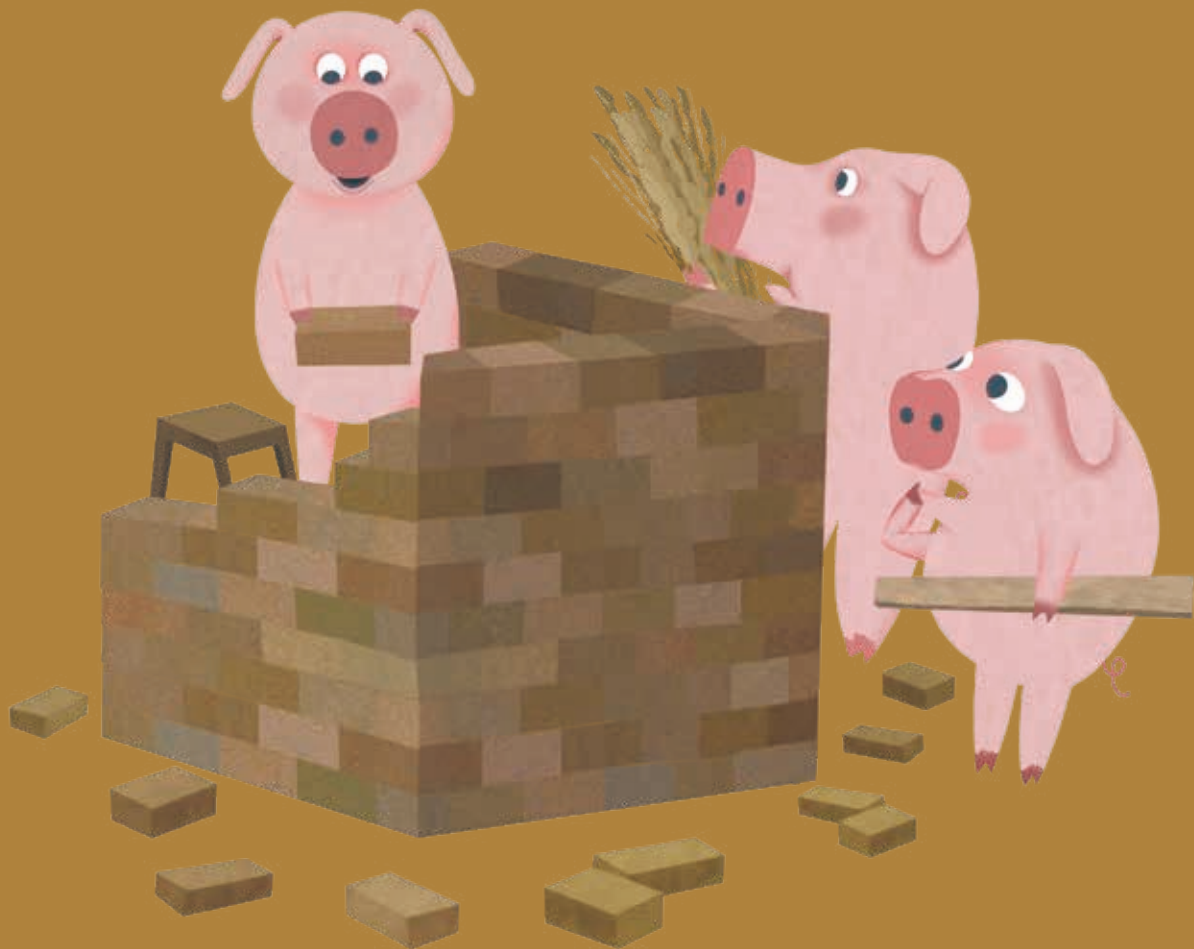




04 공감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

08 스포츠라이트

씨름과 초심

14 생활의 발견

프로필렌옥사이드와 화장품

34 주요 경영활동

우수제안 추가보상 시상

통권 제466호 발행일 2020년 9월 7일 발행처 에스-오일 주식회사 홍보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92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제작 ㈜디자인소호 02-514-5164 · (주)성환인쇄 02-2273-0583
안내 일부 기사*의 게재를 잠정 보류합니다.
* <달리는 희망 주유소> <취미 연관 검색어> <가족 추억 공작소>

MADE 함께 만드는 가치

04
공감 동화
[최고] 아기돼지 삼형제

06
고전 속 핵심가치
[협력] 화이부동
다를수록 빛나는 화합

IN 우리 안의 성장관

08
스포츠라이트
세상 향한 첫 마음
[씨름과 초심]

10
읽고 듣는 오페라
<라크메> '꽃의 이중창'

12
언제나 건강
감각 바로 세우기
[신경계 질환]

14
생활의 발견
피부에 양보하세요
[프로필렌옥사이드 & 화장품]

16
이달의 활력평가
9월 탐구영역 [경제]

18
터벅터벅 소도시
[바이올린 본고장]
이탈리아 크레모나

22
간이역 산책
멈춘 뒤 비로소 보이는 낭만
[남양주 능내역]

26
지식 한 뼛
어둠 밝히는 1리터 빛
[리터 오브 라이트]





표지 속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예측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는 최고를 달성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의 주인공은 탄탄한 기초와 충실한 과정을 통해 견고한 집을 완성하고 늑대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최고 가치를 견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 미래 지평을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4쪽

S-OIL 앞서나가는 에너지

28

두런두런 이야기방

세계문화유산 수원 여형
섬진강 자전거길 종주

32

우수 협력업체

대아공조플랜트
CJ프레시웨이

34

주요 경영활동

우수제안 추가보상 시상
순직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전달
계열주유소 거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개시

37

단신

무디스 국제신용등급 '안정적' 유지
영업성과 우수지사 시상

38

팝업 정보창

슬기로운 하루 일과
사회적 거리두기

39

임직원 동정

41

독자마당

28



34



35



36



22





제9화 [최고]

기대 이상의
대처

아기돼지 삼형제

글: 이일야(<동화가 있는 철학 서재> 저자)

위기 극복의 경험을 거듭하며
우리는 최고 위치에 가까워진다.
단련되기도 전에 작은 위기에
휘청거리면 기회조차 잡기
어렵다. 최고(Excellence) 가치는
견고한 기초 위에 튼튼한 건물을
세우는 과정과 같다. 막내 돼지가
쌓아올린 벽돌은 최상의 집을
향한 단단한 신념과 의지를
보여준다. 계획한 목표를 의연하게
추진해 나간 그 행동이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유럽에서 오래 전 민담으로 전파된 <아기돼지 삼형제>는 영국 작가 조셉 제이콥스(Joseph Jacobs, 1854~1916)가 엮은 <영국 옛이야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오늘날 상징적인 캐릭터를 갖추게 된 것은 1933년 월트 디즈니가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각색하면서다.

당시 미국은 1929년 주식시장 붕괴로 시작된 대공황의 절망 속에 침체돼 있었다. 암흑기에 개봉된 <아기돼지 삼형제>는 때마침 뉴딜정책의 영웅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취임과 맞물려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늑대 공격과 같은 대공황에서 벗어나길 갈망하는 미국인들에게 착실한 막내 돼지는 대통령에 대한 은유이자 위기 극복의 기대심리를 투영하는 캐릭터였다.

희망의 상징물로서 막내 돼지의 집은 늑대의 갖은 공격에도 끄떡없이 건재한다. 당시 미국인들에게 그랬듯 오늘날 우리에게도 막내 돼지의 충실한 과정 지키기와 의연한 대처는 최고 가치에 이르는 교훈을 전한다.



최고 Excellence

열정 Passion

정도 Integrity

협력 Collaboration

나눔 Sharing

우리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변화하고, 진보하여 고객과 동료와 주주들에게 기대를 뛰어넘는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탁월한 수익성을 달성합니다.

과정의 충실성

원문에서 가난한 엄마돼지는 아기돼지 삼형제에게 ‘운(fortune)’을 찾아 떠나라고 당부한다. 안타깝게도 첫째와 둘째 돼지는 언제든 운이 찾아올 거라 믿고 당장의 자유를 만끽할 뿐 집짓기의 중요성을 망각한다.

막내 돼지는 형들과 달리 정성을 다해 집을 짓는다. 그 과정에서 하자가 생기면 최선을 다해 보수했다. 튼튼하고 멋진 벽돌집은 막내 돼지의 노력이 응축된 상징물이다. 중국 고전인 <대학>에서 ‘정성을 다하면 겉으로 드러난다(誠於中形於外)’라는 말로 강조한 것처럼 막내 돼지의 집은 위기에 진가를 발휘한다.



의연한 대처

기름이 약한 첫째와 둘째 돼지의 집은 늑대의 공격에 와르르 무너진다. 원작에서는 늑대에게 잡아먹히지만 오늘날 동화에서는 막내 돼지 집에서 함께 늑대를 물리치는 결말이다. 난로에 불을 피워 굴뚝으로 들어오려는 늑대를 골탕 먹이는 장면은 막내 돼지의 임기응변이 돋보인 순간이다. 그 외에도 순무 밭에서 만나자는 늑대의 꼬임에 속지 않고 약속시간보다 먼저 다녀오는 기지를 발휘한다. 위기 앞에 번뜩이는 지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한 이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성실한 과정을 밟아가며 변화무쌍한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자세야말로 최고로 향하는 일관된 길이다. 🌈

“아기돼지야, 준비됐니?”

늑대의 물음에 아기돼지가 답했습니다.

“준비됐냐고요? 나는 벌써 다녀왔어요.”

<영국 옛이야기>* 늑대와 셋째 돼지의 대화 중에서

* <영국 옛이야기>(현대지성사-2005)는 영국 작가 조셉 제이콥스의 <영국 옛이야기>와 <영국 옛이야기 속편>에 실린 87편에 대한 국내 최초 완역본이다.





和而不同

핵심가치
[협력] 편다를수록
빛나는 화합

글. 박수밀(고전문학자)

— 화합의 요건 갖추기

어느 단체든 구성원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다. 의견 충돌이 있다고 실패하는 것은 아니며 갈등 없이 조용하다고 해서 화합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서로 다른 입장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화합을 이루기도 하고 와해되기도 한다.

공자는 <논어> 자로(子路) 편에서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고 했다. 화이부동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한 가운데 화합한다는 뜻이다. 군자는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며 화합을 이루되 무조건 똑같이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화(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하는 정신이다.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화합한다. 반면 소인은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다. 남들도 자신과 같기를 강요하며 조화를 이루려 하지 않는다. 혹은 남의 의견을 무조건 추종하되 화합할 줄 모른다.

화이부동

어울리되 같음을 추구하지 않음

和而不同

和

화합 화

1. 화하다 2. 화목하다

而

말이을 이

1. 말을 잇다 2. 그대

不

아닐 부

1. 아니다 2. 못하다

同

한 가지 동

1. 한 가지 2. 무리

— 다름과 조화 이루기

안영과 양구거의 일화는 화(和)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안영은 제나라의 명재상으로 강직한 성품을 갖춘 신하였다. 어느 날 경공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천대라는 곳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양구거가 찾아오자 경공이 칭찬했다. “오직 양구거만이 나와 더불어 화(和)의 관계로구나.” 옆에서 모시고 있던 안영이 말했다. “양구거는 동(同)의 관계이지 어찌 화(和)의 관계라 하겠습니까?” 경공이 물었다. “화(和)와 동(同)은 다른가?”

“다릅니다. 화(和)는 국과 같습니다. 식초와 젓갈, 소금, 매실을 넣어 물을 넣고 불을 때서 고기를 삶을 때 주방장은 화(和)의 원리로 맛을 고르게 합니다. 부족하면 보충하고 지나치면 덜어내서 군자가 이를 맛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옳다고 하면 아니라고 간하는 신하가 돼야 합니다.”

예로부터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짭맛 다섯 가지 오미(五味)를 골고루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최고로 여겼다. 서로 다른 맛이 어울릴 때 풍미 깊은 국이 완성되듯 나와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면 조화로운 공동체가 된다.

무조건 동일성으로 가뉘서는 안 된다. 먼저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

다. 포용력을 발휘해 차이를 존중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협력(和)의 정신이다. 🌱



핵심가치 [협력] 되새기며
필사로 사자성어를 익혀보세요!

和而不同

和而不同

和而不同

和而不同

和而不同

和而不同

세상 향한 첫 마음

씨름과 초심

글. 공규택(<경기장을 뛰쳐나온 인문학> 저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첫 등판의 열정과
포부는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는 든직한
저력이다. 씨름 전성기에 정점을 찍은
이만기와 신홍 강자 강호동의 경기 일화를
통해 슬럼프 극복의 추동력으로 작용한
초심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그때 그 경기!

수 읽는 괴력의 싸움

프로스포츠계에 입문한 신인 선수라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신인상을 탐내게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프로무대 데뷔 첫해에 출중한 실력으로 신인상을 거머쥔 선수들은 바로 다음 해에 약속이나 한 듯 하락세를 면치 못한다. 심지어 성적이 곤두박질치거나 존재감을 상실하는 등 이른바 '2년차 징크스'에 시달리는 선수들이 허다하다.

2년차 징크스의 부담을 이겨내고 슈퍼루키에서 진정한 우승자로 성장한 선수도 있다. 씨름 선수 출신 방송인 강호동도 그중 하나다. 그는 데뷔 연도인 1989년 씨름 선수로 최고의 자리에 있던 이만기 선수를 가을 백두장사 준결승에서 2대0으로 꺾어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그에게 2년차 징크스는 없었다. 이듬해인 1990년 제18회 천하장사 씨름대회 준결승에서 다시 이만기 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올라 첫 천하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은퇴 뒤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강호동은 한 인터뷰에서 선수생활을 거듭할수록 기량 뛰어난 후배 선수들의 등장에 중압감을 느꼈음을 고백한 바 있다.



스포츠 잡학사전

2년차 위기

신인 선수에게 '소퍼모어(sophomore) 증후군'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2학년을 의미하는 소퍼모어(sophomore)에서 유래했다. 신인 첫해에 성적이 매우 좋았으나 다음 해에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는 현상을 말한다.

선수 사이에서는 소퍼모어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로 외부의 과도한 관심과 시선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꼽는다. 첫해에 에너지를 한꺼번에 쏟아부어 다음 해에 힘이 빠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스포츠 전문가들은 신인 선수는 정보가 부족해 대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1년간 출장 기록이 쌓이면 선수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해 2년차에 약점을 공략할 수 있게 된다고도 분석한다. 요컨대 상대편은 신인왕에 대해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은 대응책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다.



조직 속 플레이

두려움 날리는 초심

통계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소퍼모어 증후군에 대해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둔 뒤 평균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의미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평균 회귀'라는 개념은 끝없이 추락할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반등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라는 삶의 진실을 전한다. 오늘 비록 실패했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갈고닦는다면 도전하는 일의 성과는 반드시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성을 보일 것이라는 뜻이다. 동시에 오늘의 성공 뒤에는 예기치 못한 난관이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올해 신인왕이 내년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듯, 오늘의 실패가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도전 의지를 불태우는 초심만 잘 유지해도 좌절과 실패가 두렵지 않다. 🌻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스포츠 관련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의 이중창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꽃의 이중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라크메>

글. 정은주(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라크메 & 말리카

라 : 이리 와, 말리카. 꽃이 핀 덩굴이 그들의 그림자를
드리웠다네. 신성한 물결을 따라 고요하게 흐르네.
소나무 사이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활기를 띠네.

말 : 오! 주인님,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예요.
주인님의 미소를 볼 수 있는 신성한 시간.
단한 주인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축복받은 시간, 라크메!

라 : 뻑뻑한 재스민 덩굴 / 말 : 하얀 재스민이 울창한 덩굴 아래에서

라 : 장미와 섞이면 / 말 : 장미와 어울리긴 하지만

라 : 상쾌하게 빛나는 꽃이 피는 아침 / 말 : 아침 햇빛이 환한 흐름
의 독 위에서,

라 : 우리를 불러라. / 말 : 자, 같이 떠나려가요.

라 : 아! 미끄러지듯 가자. / 말 : 매혹적인 흐름으로 부드럽게 가요.

라 : 도망치는 물살 / 말 : 도망치는 물살을 따라가요.

라 & 말 : 물결치는 표면에서 태연한 손으로

라 & 말 : 해안으로 가자. / 말 : 자, 해안으로 가요.

라 : 새가 지저귀는 곳에서 / 말 : 봄이 잠든 곳.

라 & 말 : 새, 새가 노래한다.

라 : 뻑뻑한 재스민 덩굴 / 말 : 하얀 재스민이 울창한 덩굴 아래에서

라 : 다 같이 불러! / 말 : 아! 같이 내려가요!

라 : 하지만 섬뜩한 고통의 느낌이 올 때 두려워.
내 아버지가 저주받은 그 도시에 갈 때는 떨려.
무서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 : 가네샤 신의 가호가 있기를. 흰 날개를 가진 백조가 즐겁게
노는 연못으로 가요. 그곳에서 푸른 연꽃을 골라 봐요.

라 : 흰 날개를 가진 백조 근처에서, 푸른 연꽃을 골라봐.

#Lakmé & Mallika

L : Viens, Mallika, les lianes en fleurs Jettent déjà leur ombre
Sur le ruisseau sacré qui coule, calme et sombre, Eveillé
par le chant des oiseaux tapageurs.

M : Oh! maîtresse, c'est l'heure où je te vois sourire, L'heure
bénie où je puis lire Dans le coeur toujours fermé De
Lakmé!

L : Dôme épais le jasmin / M : Sous le dôme épais où le blanc
jasmin

L : À la rose s'assemble, / M : À la rose s'assemble,

L : Rive en fleurs, frais matin / M : Sur la rive en fleurs, riant
au matin,

L : Nous appellent ensemble. / M : Viens, descendons
ensemble.

L : Ah! glissons en suivant / M : Doucement glissons; De son
flot charmant

L : Le courant fuyant; / M : Suivons le courant fuyant;

L&M : Dans l'onde frémissante,

L&M : D'une main nonchalante,

L : Gagnons le bord, / M : Viens, gagnons le bord

L&M : l'oiseau, l'oiseau chante.

L : Dôme épais, blanc jasmin, / M : Sous le dôme épais, Sous
le blanc jasmin,

L : Nous appellent ensemble! / M : Ah! descendons ensemble!

L : Mais, je ne sais quelle crainte subite s'empare de moi.
Quand mon père va seul à leur ville maudite, Je tremble,
je tremble d'effroi!

M : Pour que le Dieu Ganeça le protège, Jusqu'à l'étang où
s'ébattent joyeux Les cygnes aux ailes de neige, Allons
cueillir les lotus bleus.

L : Oui, près des cygnes aux ailes de neige, Allons cueillir les
lotus bleus.

<라크메> 작품 속으로

19세기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시대, 인도 주재 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제럴드는 영국인 친구들과 함께 브라만교 신자만 입장할 수 있는 정원에 침입한다. 그곳에서 우연히 아름다운 여사제 라크메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브라만교 고승 니라칸타는 침입자들을 찾기 위해 자신의 딸 라크메를 유인책으로 쓴다. 그녀가 시장 한복판에서 노래한다면 반드시 영국인 침입자가 정체를 드러낼 거라 확신한다. 예상대로 시장에 나타난 제럴드는 니라칸타 자객의 칼을 맞고 라크메는 그를 숲속 동굴로 피신시킨다. 그러나 후에 제럴드가 라크메 대신 영국의 약혼녀를 선택하자 애인의 변심을 눈치챈 라크메는 독초를 씹고 죽음을 맞이한다.



#1 변심과 죽음으로 귀결된 비극적 사랑

<라크메>는 프랑스 해군 사관으로 복무했던 피에르 로티가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쓴 소설 <로티의 결혼>을 원작으로 한다. 극작가 에드몽 곤디네와 필리프 질이 완성한 대본에 레오 들리브의 음악이 더해져 걸작이 탄생했다.

1883년 4월 14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에서 초연된 이 오페라는 약 50년 뒤인 1931년 5월, 같은 무대에서 1천 회 기념 공연이 열렸다.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얻는 작품임과 동시에 레오 들리브의 유작이란 의미가 더해져 가능했던 이벤트다.

이 작품은 민족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고 비극적 사랑을 다루는 점에서 푸치니의 <나비 부인>을 떠올리게 한다. 라크메가 이루지 못한 사랑이 <나비 부인>의 상황과 흡사하다.

#2 청아한 화음에 담은 순수한 감성

총 3막으로 구성된 <라크메>는 2시간 30분 가량 연주가 진행된다. '종의 노래', '젊은 힌두 아가씨, 어디로 가시나요' 등의 아리아가 유명하다. 제럴드는 테너, 라크메는 소프라노, 니라칸타는 베이스 바리톤, 말리카는 메조 소프라노, 프레더릭은 바리톤이 맡는다.

1막에 등장하는 '꽃의 이중창'은 제럴드와 라크메의 비극적 사랑이 시작되기 전에 등장한다. 때 묻지 않은 맑고 순수한 감성이 잔잔한 선율과 함께 흐른다. 배를 타고 연꽃을 따라가는 라크메와 하녀 말리카가 나누는 대화는 마치 한 편의 시와 같다. "아가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축복받은 시간", "흰 날개를 가진 백조 근처에서 푸른 연꽃을 골라봐" 등 가사들이 평화로운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



클레망 필리베르 레오
들리브(1836~1891)
프랑스 작곡가

17세에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뒤 19세에 오페라 <2수의 석탄>을 통해 작곡가로 데뷔했다. 이후 <임금님의 말씀>, <라크메> 등 오페라 코미크(희극 오페라)나 오페레타(소형 오페라)를 선보이며 성공을 거뒀다. 그의 음악은 세련되고 우아한 화성양식이 돋보여 프랑스 발레 음악의 경지를 높인 작곡가로 꼽힌다. 대표작으로 오페라 <라크메>, <니벨르의 장>, 가곡 <카디스의 처녀들>이 있다.

아는 만큼 들리는 오페라 상식!

인테르메초

(intermezzo)

우리말로 막간을 뜻한다. 17~18세기 유행했던 오페라 세리아(엄숙하고 비극적인 오페라)의 막과 막 사이에 연주된 짧은 형태의 희극 오페라다. 전체 오페라의 극적인 효과를 돕는다. 훗날 기악곡의 한 장르인 간주곡으로도 변형됐다.

드라마투르크

(dramaturg)

오페라 제작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대본 준비부터 캐스팅과 연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오페라 제작의 많은 부분에 관여하지만 특정 직책을 갖지 않는다.



언제나 건강

모든 가능성의 기본은 건강입니다. 12대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예방·관리·개선에 참고할 정보를 집약합니다.

감각 바로 세우기

신경계 질환

분노조절 장애, 극도의 스트레스, 불안과 우울 등으로 평온한 심신 상태가 깨지면 우리 몸은 각 기관마다 신호를 주고받으며 이상을 감지한다. 화를 내거나 반대로 감정을 억제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고 혈압이 상승하거나 숨이 가빠지는 것도 그러한 현상이다. 신경계는 원활한 신체 교신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균형추다.

1월
심장
질환

2월
관절염

3월
당뇨병

4월
뇌혈관
질환

5월
악성
신생물

6월
간
질환

7월
정신·행동
장애

8월
호흡기
질환

9월
신경계
질환

10월
갑상선
장애

11월
고혈압

12월
만성
신장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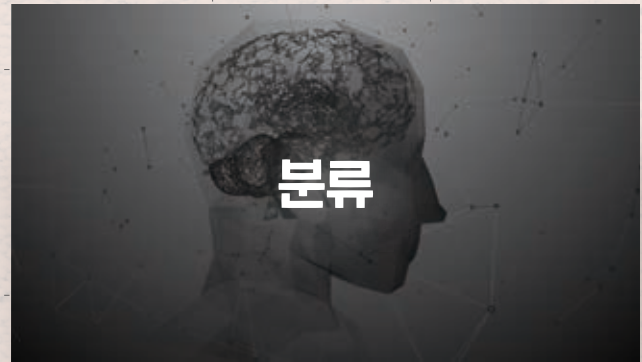
정의

몸의 전달 신호, 신경계

신경계는 신체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고, 종합 분석해 신체 활동을 조절한다. 신경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는 뉴런(neuron)으로 일반적으로 신경세포를 지칭한다.

신경계 분류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뉜다. 중추신경계는 뼈 조직 안에 보호받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며 말초신경계는 손·발·팔·다리 등 말초를 연결하는 신경다발들이다. 중추신경계는 말초신경계가 보내는 체내외 정보를 종합, 분석해 신체가 적절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



분류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 질환은 뇌와 척수 관련한 질병들이다. 현대인에 자주 발생하는 공황장애, 두통을 비롯해 4대 신경계 질환(뇌전증·치매·파킨슨병·뇌졸중), 뇌경색, 뇌염, 뇌진탕, 뇌성마비, 척수종양, 척수경색 등이 중추신경계 손상과 관계 깊다.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는 손끝, 발끝, 몸 구석까지 연결된 만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이 다양하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대략 100여 가지에 이른다. 환자와 원인에 따라 다른 증상을 보여 진단이 까다로운 편이다. 말초신경계는 세부적으로 운동신경계와 감각신경계, 자율신경계로 구분된다.

파킨슨병

중추신경계 여러 신경전달물질 중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가 소실되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다. 60세 이상 노령층에서 약 1%, 65세 이상에서 약 2% 정도가 앓고 있다.

원인 중추신경계 손상, 유전, 환경적 요인

증상 안정 시 떨림, 근육 강직, 언어 장애, 일상 동작이 느려지는 현상

검사 환자의 특징적 증상에 대한 병력 청취, 전문의의 신경학적 검사 소견,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치료 약물치료, 뇌심부 자극술

뇌전증

흔히 간질로 알려진 뇌전증은 뇌신경이 불규칙하게 흥분하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뇌신경 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키면서 의식 소실, 신체 마비 등이 발생한다. 심해지면 거품을 물고 호흡이 어려워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원인 중추신경계 손상, 과도한 음주, 유전

증상 발작, 팔다리 경련, 수면 중 몸 떨림

검사 뇌파 검사(EEG), 자기공명영상(MRI)

치료 약물치료, 약물치료 경과에 따라 국소 절제술 시행

공황장애

어지럼증, 두통 등 중추신경계 증상들은 공황장애를 동반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극단적인 불안 증상,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2019)에 따르면 4년 동안 공황장애 환자 수가 7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2명 중 1명은 30~40대 청장년이다.

원인 중추신경계 이상, 유전, 심리사회적 요인

증상 호흡장애, 어지러움, 손발 떨림, 가슴 통증, 오한,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 등

검사 체질, 심리, 평가척도, 뇌기능, 스트레스, 체성분 검사

치료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공황기록표 작성), 카페인 섭취·음주 자제

손발 저림

환절기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 혈관이 수축되면 손발 저림 증상을 느낄 수 있다. 일시적 이상은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지만 저림 현상이 지속된다면 신경계 손상 특히 말초신경병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원인 손목터널증후군, 척추질환, 뇌졸중, 당뇨, 알콜성 신경병, 영양결핍 등

증상 감각 둔화, 화끈거림, 저림, 시림 등

검사 신경근전도검사, 자율신경검사, 신경초음파검사 등

치료 약물치료, 전기자극치료 등



피부에 양보하세요

프로필렌옥사이드와 화장품

석유의 마법 같은 성질은 정제라 불리는 근대의 연금술에 의해 증류탑을 거치며 원석에서 보석으로 거듭났다. 화장품도 그 수혜 품목이다. 특히 우리가 만들어내는 프로필렌옥사이드는 매일 바르며 미를 더하는 화장품과 관계 깊다. 화장품을 뜻하는 'cosmetic' 단어는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나타내는 희랍어 'kosmos'에서 유래했다. 성분의 조화를 통해 외모의 조화를 가꾸는 셈이다.

프로필렌옥사이드

투명한 액체 성질로 자동차나 가구의 쿠션, 건축 보온재 등으로 쓰이는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폴리올(polyol), 화장품·섬유 첨가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 세정제 등의 원료인 프로필렌글리콜에테르(propylene glycol ether) 등의 기초 원료다.

바르고 먹는 '프로필렌글리콜'

주로 향료나 보습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투명한 시럽상 액체다. 다른 성분을 녹이거나 점도를 떨어트리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냄새가 없거나 또는 미미하며 약간의 쓴맛과 단맛이 있는 용제다. 소량의 프로필렌글리콜은 빵의 신전제·보습제와 쇼트닝의 신전제로도 쓰인다. 프로필렌옥사이드를 가수분해시키면 얻어지는 성분이다.

프로필렌옥사이드(PO, propylene oxide)

✓ 화장품·섬유 첨가제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의 기초 원료

✓ 우리회사 연산 30만 톤 생산

8월
마스크

9월
화장품

10월
식품용기

11월
자동차

12월
지폐

인류의 화장 역사는 5만 년 전으로 추정(미국립과학원회보 2010년 1월 발표)된다. 하지만 다양한 사료를 통해 화장 기술의 존재를 입증한 때는 기원전 7500년경 이집트다. 종교적 목적과 신체 보호를 위해 시작된 이집트의 화장 기술이 클레오파트라 시대 정점을 이룬 뒤 당대의 피부 관리법과 화장 기법 원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특히 보습을 위해 사용한 아몬드와 꿀, 식물성 오일은 오늘날까지도 보습제 성분으로 사용된다.

개미는 클레오파트라가 연지벌레와 함께 으깨어 립스틱으로 사용한 재료다. 조선시대 사도세자 친누나인 화협옹주의 화장품에서도 발견됐다. 중국 명나라 <본초綱目>에는 피부병에 개미를 찢어 바르거나 갈아서 바른다고 기록돼 있다.

중세시대 의학자와 연금술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은 1300년대 초, 의학과 분리되기 시작했다. 19세기에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등장과 석유화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사용감과 안전성 갖춘 화장품 시장이 형성되고 이후 화장품은 고품질화·다양화 시대를 맞았다.

현대 화장법의 기원

클레오파트라



고대 화장품

이색 재료



화장품의 도약

석유화학 기술



제2차 세계대전

→ 글리세린 대체품, 프로필렌글리콜

오늘날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의약용으로 부족한 글리세린의 대체품으로 등장했다. 프로필렌옥사이드가 프로필렌글리콜의 원료다. 프로필렌옥사이드를 가수분해해 얻어지는 프로필렌글리콜은 유효성분의 피부 침투력이 우수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용해력이 글리세롤보다 우수하고 곰팡이 생장을 방지해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의 주사용 용제로도 사용됐다.

인정받은

안전성 지표

오늘날 천연 화장품이 각광받으면서 석유화학 성분 자체를 기피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유해성과 안전성은 엄연히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천연에서 유래한 성분은 지속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가 있다. 화장품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다. 1~10등급 중 낮을수록 안전하다. 프로필렌글리콜 등급은 2~3등급이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화제·습윤제·안정제 용도로 인정한 원료이기도 하다. 🌿



이달의 활력평가

바쁜 일상에 심표를 찍습니다. 시의성 있는 소재의 인문·생활 정보 퀴즈로 이달의 화제를 짚어봅니다.

9월

탐구영역 [경제]

1. 그리스어로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는 어원을 지닌

이 단어는?

- ① 뱅크(bank) ② 이코노미(economy)
- ③ 버짓(budget) ④ 프랜차이즈(franchise)

2. 나라별 화폐 명칭과 그 단어의 기원을 선으로 연결하십시오.

- | | |
|-----------------|------------|
| 한국 원(WON) • | • 요하임계곡의 것 |
| 터키 리라(Lira) • | • 저울 |
| 영국 파운드(Pound) • | • 무게 |
| 달러(Dollar) • | • 동글다 |

3. 화폐 가치 안정을 위한 요소로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주기적으로 보유하고 통계를 발표하는 이것은?



- ① 다이아몬드 ② 금
- ③ 은 ④ 동

4.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을 서두르는 블록체인 기반 화폐 용어는?

- ① CBDC ② 알트코인
- ③ 비트코인 ④ 암호화폐

5. 구도일 대리 신용카드의 피킹률을 계산하십시오.



구도일 신용카드(예시)

연회비 : 3만5천 원
 월 평균 사용금액 : 50만 원
 월 평균 혜택금액 : 1만5천 원

$$\text{신용카드 피킹률 계산 공식} = \frac{\text{월 평균 혜택금액} - (\text{연회비} / 12)}{\text{월 평균 사용 금액}} \times 100$$

- ① 1% ② 2.4%
- ③ 3.5% ④ 4%

6. 내년 1월부터 개인 신용등급 용어가 '개인신용점수제'로 바뀐다. 기존 1~10등급의 신용평가 체계는 1점부터 ()점까지 점수제로 재편된다. 괄호 안 숫자를 고르시오.

- ① 50 ② 100
- ③ 500 ④ 1000

7. 부동산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서비스 산업을 가리키는 신조어는?

- ① 어그테크 ② 프롭테크
- ③ 리셀테크 ④ 인슈어테크

정답·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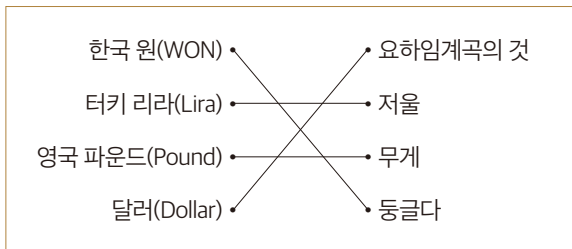
1. ② 이코노미

*자료 : <어원으로 배우는 경제 이야기>·김경원

경제의 영문표기인 이코노미(economy)는 그리스어로 집의 의미하는 오이코스(oikos)와 관리를 뜻하는 노미아(nomia)를 합친 단어다. 집안일 관리에서 범위가 확장돼 국가의 부와 자원을 관리하는 의미로 정착됐다. 우리나라 사전에서는 경제를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2.

*자료 : 옥스퍼드사전 공식 블로그



한국의 '원'과 중국 '위안', 일본 '엔' 모두 '동글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달러는 체코 동남부 은광 채굴지 요하임계곡에서 생산된 은으로 만든 은화라는 뜻에서 '요하임계곡의 것(Joachimsthaler)' 뒷글자를 따 줄여 부르다 지금의 달러가 됐다.

3. ② 금

*자료 : <금의 귀환>·제임스 리카즈

전쟁이 나면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 가치가 순식간에 0에 수렴할 수 있다. 하지만 금은 현대 통화질서가 붕괴될 경우에도 통용될 최후의 화폐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금괴를 비축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금 보유고 35위에 올라 있다.

4. ① CBDC

*자료 : <금융논술 A매치>·석의현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국가가 발행한다는 신뢰성을 확보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금과 달리 거래 익명성을 제한해 돈의 사용과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외 암호화폐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5. ② 2.4%

*자료 : 기획재정부

신용카드 피킹률(picking rate)이란 해당 카드 사용금액 중 할인, 적립 등 혜택을 받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3% 이상이면 적절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1% 미만이면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셈이다.

6. ④ 1000

*자료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점수제는 미세한 차이로 낮은 신용등급을 받은 사람들의 불이익을 감안해 개편되는 제도다. 1000점 만점으로 점수가 클수록 높은 신용도를 나타낸다.

7. ② 프롭테크

*자료 : 매일경제용어사전

프롭테크(Prop 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 어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을 뜻하며, 리셀테크(Resell Tech)는 물건을 되파는 리셀(resell)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희소성 있는 중고 제품을 재판매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슈어테크(Insur Tech)는 보험(insurance)산업에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서비스다.



터벅터벅 소도시

세계 곳곳에 오랜 가치가 살아 있습니다. '본고장'으로 일컬어지는 국외 소도시 여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Travel Information

이동시간

인천~밀라노
(비행기 약 11시간),
밀라노~크레모나
(기차 약 1시간 5분)

시차

한국보다 8시간 느림

화폐

유로(1유로 ≈ 한화 1400원)

교통수단

버스, 도보



선율이 이끄는 길

[바이올린 본고장]
이탈리아 크레모나

글. 홍수연(여행작가)

인구 7만 명이 조금 넘는 이탈리아 북부의 고풍스런 소도시 크레모나는 단 하나의 아이템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소유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최고의 명기(名器)로 꼽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Stradivarius)와 과르네리 델 제수(Guarneri Del Gesu)다. 명품 바이올린을 찾아 떠난 여행길에 중세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옛 거리를 걷다 보면 명장의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오듯 가슴이 두근거린다.

최고의 명품 악기 탄생된
중세 도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요람 크레모나는 중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도시 중심인 코무네 광장을 위시해 30여 곳의 중세 시대 건물과 성당, 건축물들이 남아 있다. 기원전 218년경 로마인들이 건설한 도시인만큼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곳이다. 크레모나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16세기 초반 안드레아 아마티가 크레모나에서 제작한 바이올린을 유럽에 선보이면서부터다. 그 뒤 200여 년 동안 명장들이 계속 탄생하면서 크레모나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명산지가 됐다. 지금도 100여 개 바이올린 공방이 운영되고 유명 바이올린 제작 전문학교들이 즐비해 전 세계에서 악기 제작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수학한다.

1700년대 크레모나 악기가 명성을 떨친 요인 중 하나는 우수한 목재다. 1645년부터 1750년까지 지속된 유럽의 소빙하기에 추운 겨울을 견디며 밀도가 높아진 크로아티아의 단풍나무를 사용했다. 그 외에 크레모나만의 비법으로 제조된 도료와 지금은 사라진 당대의 독특한 제작 기법도 명품의 탄생에 한몫을 했다.



아름다운 크레모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장소

코무네 광장(Piazza del Comune)

이탈리아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광장이다. 중세 광장의 형태와 그 시대 분위기가 고스란히 간직돼 있다. 두오모와 코무날레 궁 등 유서 깊은 건물들이 광장을 둘러싼다. 13세기 이후 주요 건물들이 근처에 건축되면서 현재까지도 도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두오모(Duomo)

1107년 공사를 시작해 1332년에 완공된 성당으로 롬바르디아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13세기에 만들어진 장미창과 흰 대리석으로 된 파사드는 장엄하면서도 화려한 아름다움까지 갖췄다. 옛 이탈리아 건축 기술의 우수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종탑(Torrazzo)

두오모에 속한 높이 111m의 종탑이다. 이곳에 있는 시계는 1583년에 제작됐는데 지름이 8m에 이른다. 멋진 풍경을 보기 위해서는 500여 개의 계단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가야 하지만 꼭대기에서 내려다 본 아름다운 크레모나 풍경으로 충분히 보상받는다.

바이올린 박물관(Museo del Violino)

최고의 명품 악기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악기에서 뿜어 나오는 신비로운 느낌과 아우라를 경험할 수 있다. 후기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바이올린의 변화 과정을 비롯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전시물들을 선보인다. 🌟



크레모나 음악 축제

바이올린 본고장에서 즐기는 음악회다. 1년 내내 크고 작은 공연들이 열리는 가운데 가장 유명한 행사는 크레모나 썸머 페스티벌과 스트라디바리 페스티벌이다.

크레모나 썸머 페스티벌(Cremona Summer Festival)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걸쳐 2주 동안 진행된다. 세계 각국에서 온 엄선된 오케스트라가 코무네 광장을 비롯한 도시 곳곳에서 멋진 공연을 펼친다. 2021년에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2022년에는 6월 28일부터 7월 2일로 예정돼 있다.

*홈페이지 : cremonaorchestrafestival.org

스트라디바리 페스티벌(Stradivari Festival)

크레모나의 상징적인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기념하는 음악회다. 올해는 10월 2일에서 18일 사이로 일정을 정하고 팬데믹 추이를 살피고 있다. 바이올린 박물관이 주최하며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의 솔로나 협연 공연, 실내악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진다.

*홈페이지 : www.stradivarifestival.it/en

바이올린 명장 가문

크레모나에서 바이올린으로 경쟁했던 세 가문은 아마티·스트라디바리·과르네리 가문이다.

아마티(Amati) 가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와 안드레아 과르네리를 길러낸 스승, 니콜로 아마티의 가문이다.

스트라디바리(Stradivari) 가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는 표준형 바이올린의 창시자로 불린다. 생전에 1천여 개의 바이올린을 비롯한 기타, 하프 등의 악기를 만들었다. 현재는 650여 개가 남아 있어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점점 오르고 있다.

과르네리(Guarneri) 가문

안드레아 과르네리의 손자 바르톨로메오 주세페 과르네리가 1741년 제작한 과르네리 델 제수 '비외탕(Vieuxtemps)'은 옥션에서 약 179억 원에 낙찰된 바이올린이다. 이 가격은 현재까지 공식 경매사상 최고가다.



멈춘 뒤 비로소 보이는 낭만

남양주 능내역

사진·글. 유지혜(홍보팀)



능내역에는 중앙선을 애용한 주민들의 추억이 그대로 서려있다. 서울 청량리에서 한강을 따라 양평과 강원도를 향해 달리던 중앙선의 역사(歷史)를 능내역이 기억한다. 지금은 주민의 삶과 호흡해온 52년 현업에서 물러나 여행객들의 추억 안내자로 활약한다.





능내역 전시관

1 추억이 예술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자리한 능내역은 서울을 가로질러 중앙선을 달리던 기차역으로 팔당역과 양수역 사이에 위치한다. 1956년 무배치간이역(역무원이 없는 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뒤 1967년 보통역으로 승격, 1993년 배치간이역(역무원이 있는 간이역)으로 격하, 2001년 신호장으로 변경 등 세월의 변화를 맞았다. 그러다 2008년 12월 중앙선의 노선이 국수역까지 연장돼 선로가 이설되면서 능내역은 폐역으로 쓸쓸한 퇴장을 맞았다.

하지만 남양주시의 구 철도역으로서 유일하게 관광 시설로 보존돼 숨은 명소로 각광받으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40~50년 전 동네 주민을 담은 빛바랜 흑백사진을 비롯해 예술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광고 촬영지로도 기능한다. 인기를 증명하듯 능내역사 내부로 들어가면 수많은 방문자들의 손글씨 메모가 빼곡히 붙어있다.

▼ 세월이 묻어나는 대합실 내부는 아기자기한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다.



▲ 능내역을 배경으로 한 감성 가득한 사진들은 방문객을 미소 짓게 한다.



◀ 기울어진 낡은 의자, 빨간 우체통이 호젓하게 자리해 시간을 되돌려 놓는다.



역전집 열차 카페

2 산수 아래 식후경

능내역 주변으로 다산 유적지, 다산 생태공원, 물의정원, 양수리 두물머리 등이 가깝게 위치해 있어 연인과 가족 단위 여행객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역사를 마주 보는 자리에는 식당이, 역사 측면에는 무궁화호 폐객차를 개조해 만든 열차 카페가 있다.

역전집에서는 국수 종류와 전류, 두부김치, 도토리묵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분식을 맛볼 수 있다. 날 좋은 때 방문하면 야외 파라솔 아래에서 나들이 기분을 만끽하기에 제격이다. 역사 마주한 역전집에서 식사를 마친 뒤 열차 카페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코스가 일반적이다.



▲ 능내역을 마주 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다. 부담 없는 간단한 요깃거리를 판매해 주말이면 자전거 라이더들로 북적인다.

▼ 능내역 뒤편도 관광객들의 촬영 장소로 인기가.





자전거길

3 가슴 트이는 푸른 라이딩

능내역은 운길산 자락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의 두 물줄기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해 경관이 수려하다. 질푸른 강물과 청산 따라 펼쳐진 자전거길이 능내역을 단숨에 인기 명소로 급부상시켰다.

2011년 옛 중앙선 철로가 자전거길로 탈바꿈하면서 오래된 작은 간이역은 라이더들의 쉼터가 됐다. 철로를 오가는 열차는 없지만 사람들의 추억은 여전히 그 위를 수없이 달린다.

팔당역에서 시작하는 자전거길은 팔당댐, 능내역, 다산 유적지, 물의정원 등을 지난다. 팔당역을 지나 260m의 봉안터널을 빠져나오면 팔당호가 드넓게 펼쳐진다. 능내역은 팔당역에서 6km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다. 🌳



▼ 팔당역~봉안터널~능내역에 이르는 자전거길은 검단산과 남한강이 어우러진 풍경을 끼고 펼쳐진다.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에스-오일 페이스북에서
인근의 다양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능내역 근처에 자전거 대여점이 있어 1인승 기준 1시간, 4천 원 내외로 이용할 수 있다.

다산신도시셀프주유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39

*능내역에서 차로 30분 거리(남양주시청 제2청사 맞은편)





어둠 밝히는 1리터 빛

리터 오브 라이트

글: 김찬중(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적정기술, 현대문명에 길을 묻다> 저자)

아직도 지구촌에는 밝은 대낮에도 햇빛에 소외된 오지가 있다. 어둠 속에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한 줄기 빛의 기적을 선물한 리터 오브 라이트는 물과 표백제를 채운 페트병으로 조명을 만드는 지속가능 친환경 시스템이다.

페트병 조명 리터 오브 라이트

햇빛이 페트병 물속에서 굴절돼 물 분자와 충돌, 증폭해 빛을 산란시키는 원리로 전기 사용이 어려운 낙후 지역에 대체 에너지를 제공하는 적정기술 프로젝트

- 표백제와 물이 담긴 1리터~1.5리터 페트병
- 햇빛 굴절과 산란 통해 빛 방출

리터 오브 라이트의 적정기술 가치는?

- ☞ 비용 제작비 1달러·전기세 제로
- ☞ 효과 40~60 와트(W)의 출력
- ☞ 기술 현지 조달 용이한 재활용품 활용
- ☞ 보급 현지 교육센터 통해 페트병 전구 제작법 현지인에 전수
온라인 오픈 소스(Open source)로 제작법 무상 공유
- ☞ 지속성 한 번 설치로 10개월~5년 사용 가능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추구하는 인간중심적 기술로서 1965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유네스코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를 통해 처음 소개됐다. 지역의 문화·관습·경제·환경에 적합한 간단한 기술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데서 '적정'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생산 비용이 적게 들고 유지·보수·사용법이 쉬워야 한다는 조건을 갖춘다.



1 리터

물을 빛으로

2002년 브라질의 한 작업실, 정비공인 알프레드 모저(Alfred Moser)는 갑자기 전기가 나가자 천장에 구멍을 뚫어 햇빛이 작업실로 들어오게 했다. 하지만 빛의 직진 성질 때문에 공간 전체가 아닌 구멍 아래만 밝아졌다. 이에 모저는 작업실 구석에 놓인 버려진 플라스틱 페트병에 물을 채워 천장 구멍에 끼웠다. 그러자 햇빛이 페트병 물을 통과하면서 분산돼 작업실 전체를 환하게 비췄다.

페트병 전구가 알려지자 필리핀 마이쉘터재단(Myshelter Foundation)에서 모저를 찾아왔다. 빈민가 지역의 태풍 피해 복구에 사용하고 싶다는 제안에 그는 흔쾌히 동의했다. 처음 100개 남짓 무상으로 배포한 이 사업은 개당 1달러에 설치해 주는 리터 오브 라이트(Liter of light)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3 박자 시너지

삶의 질·환경·경제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필리핀 20개 도시에 1만 5천 개의 페트병 조명이 설치됐다. 이후 동남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스페인 등으로 퍼져 나가 1년 만에 2만8천 가구 이상, 7만여 명(2014 기준)에게 전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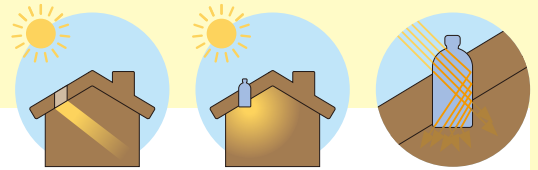
페트병 조명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도 한몫 한다. 페트병 조명과 비슷한 55W(와트) 전구의 낮 시간 사용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면 kWh당 0.77kg이다. 가구당 월 평균 6달러의 전기세도 아끼게 됐다. 빈번하게 발생한 화재 또한 현저히 줄어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페트병 전구 설치를 도운 기업에는 1만5천 가구 기준 총 7천500달러를 지불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도왔다.

1 달러

지붕·페트병·물의 기적

고작 1달러 가격의 페트병 조명이지만 평균 55W 밝기와 맞먹는다. 표백제 양에 따라 10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와 재료 조달의 수월함이 큰 이점이다.

제작 방법은 간단하다. 합석판 또는 슬레이트 지붕을 페트병 크기로 구멍 낸 뒤 물을 채운 페트병을 끼우고 합석 구멍 사이의 빈 공간은 실리콘으로 채운다. 페트병에 물만 넣어 사용해도 되지만 몇 방울의 표백제(1~2%)를 함께 넣는다. 물에는 녹조류(이끼)가 살고 있어 페트병을 장시간 사용하면 안쪽에 이끼가 붙어 햇빛 통과를 방해한다. 표백제는 물속의 이끼나 미생물 성장을 억제할 뿐 아니라 흰색 가루 형태 입자가 햇빛을 공간 전체로 산란시키는 역할을 한다.



2 세대 램프

태양광 장착으로 밤에도 ON

페트병 조명의 취약점은 해가 떠 있는 낮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마이쉘터재단 설립자인 일락 디아즈(Illac Diaz)는 간단한 과학기술을 접목한 2세대 리터 오브 라이트를 만들었다.

1리터 페트병에 태양광 패널, 배터리, 센서, LED(light-emitting diode) 램프가 추가됐다. 작은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페트병 위에 설치해 낮에 햇빛으로부터 얻은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원리다. 날이 저물면 센서가 빛의 감도를 감지해 LED 램프가 켜지도록 한다. 과학기술이 접목된 2세대 리터 오브 라이트는 필리핀 마을의 여성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제작하며 1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





두런두런 이야기방

평범한 일상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우의 사연을 실습니다.



영주 소수서원

옛 문인의 자취

세계문화유산 서원 여행

글. 전균호(제품출하팀)

세계문화유산 등재 9개 사액서원

지난해 우리나라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기사를 접한 뒤 언젠가는 꼭 해당 서원들을 둘러보리라 다짐했다. 도산서원 정도만 알고 있던 터라 다양한 서원의 존재가 궁금했다.

처음 나선 곳은 안동 여행길에 들른 영주 소수서원이다. 여행 당시 인적 없는 겨울의 서원은 그저 조용한 고택처럼 느껴졌다. 알고 보니 우리나라 사립 교육기관의 첫 발자취라 한다. 서원이야말로 예습한 뒤 방문하면 특징과 매력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다음은 인근에 있는 안동 도산서원으로 나섰다. 퇴계 이황이 제자들을 가르친 서당과 퇴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지은 서원으로 나뉜다. 좁은 입지임에도 미로처럼 자리 잡은 서원을 둘러보니 퇴계 이황의 건축학적 식견이 오롯이 전해졌다.

다음 코스로 도산서원과 인접한 안동 병산서원에 들렀다. 아담한 규모의 도산서원과 달리 보이는 모든 풍광을 다 끌어안는 듯 넓은 면적에 시야가 트였다. 입구에 세워진 안내문에는 우리나라 9개 사액서원(임금이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린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정보와 각 서원의 위치를 알리고 있었다. 메마른 배롱나무에 꽃이 피는 여름에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서원의 정취를 한가로이 누렸다.

그 다음 방문한 곳은 포항 옥산서원이다. 영남지역 정통 성리학자인 회재 이언적을 기리는 곳이다. 서원 앞에는 층을 이루고 퍼져 있는 반석 사이로 냇물이 세차게 흘렀다. 옛 선인들이 이곳에서 학업에 지친 심신을 달랬으리라 짐작한다.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

계절 따라 다른 서원 매력

지난겨울 옥산서원을 끝으로 우리의 여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 됐다. 여행을 멈춘 동안 남은 서원들을 둘러보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잠시 잤아든 5월 다시 날을 잡아 나섰다.

여행길의 시작은 대구 도동서원이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됐다가 1605년 지금의 자리에 다시 중건됐다. 낙동강 줄기 따라 들어선 초입에는 큰 은행나무가 덩직하게 세월을 함께 하고 있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가을에 와도 좋을 곳이다.

다음은 조선시대 문신 류성룡의 위패를 모신 함양 남계서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너른 들 넉넉하게 품으며 자리 잡은 남계서원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곳이다. 옛 풍광을 그대로 간직해 어릴 적 뛰어놀던 고향 같은 느낌의 서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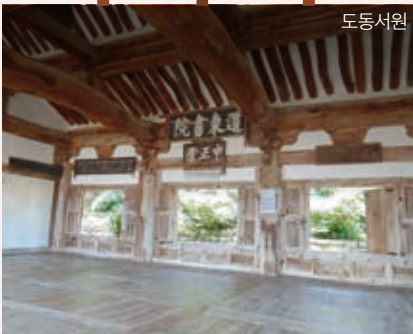
돈암서원



무성서원



도동서원



남계서원



필암서원



옥산서원 계곡



이어 장성에 있는 필암서원도 방문했다.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의 학덕을 기리는 곳이다. 외딴 곳에 자리한 다른 서원들과 달리 인근에 마을이 있어 친근하게 다가왔다. 장성 필암서원에서 정읍 무성서원으로 가는 길은 고속도로 대신 한적한 시골길을 택했다. 무성서원 가는 길에 맛보는 정읍의 진한 쌍화차 한 잔의 여운이 오래 맴돌았다.

그리고 마지막 논산 돈암서원에 당도했다. 조선 중기의 정치·사상가인 사계 김장생을 기리는 곳이다. 외딴 숲길을 지나니 서원 담장 너머 분홍색 배롱나무 꽃이 빼곡히 얼굴을 내밀었다. 서원 여행을 마친 데 대한 축하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첫 서원 여행은 그저 둘러보는 것으로 그쳤지만 다른 계절에 더욱 깊이 있는 기행을 떠나고 싶다. 그때는 지금의 번잡하고 고단한 마음을 내려놓고 와야겠다. 🌿



빗길 가른 시원한 질주

섬진강 자전거길 종주

글. 송현철(관리회계팀)

흑독한 신고식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이 반복되던 6월 초에 아내와 함께 섬진강 자전거 종주에 나섰다. 섬진강 자전거길은 전북 강진에서 광양에 이르는 150km 정도의 길로 4대강 자전거길 중 경치가 아름답기로 손꼽힌다. 인적이 드물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토요일 이른 새벽, 자전거를 타고 고속버스터미널로 향했다. 버스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어느새 도착했다는 안내 음성이 흘렀다. 짐칸에서 자전거를 꺼내는 찰나, 짐 가방이 부지직 소리를 내며 찢어졌다. 임시방편으로 구한 청테이프를 갈라진 틈새에 덕지덕지 붙였다. 어째서 작부터 예상대로 흘러가는 게 없다 싶었다.

첫날 달려야 할 거리는 강진에서 구례까지 대략 90km다. 무인인증센터에서 인증도장 7개를 수첩에 찍어야 섬진강 종주길 완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태양이 내리쬐는 오후 2시에 시작한 터라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잠시 뒤 굵은 빗방울이 불을 타고 흘러내리더니 이윽고 우두두소리와 함께 거친 비가 쏟아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했다. 비바람을 피해 잠시 정자에 머물렀는데 하늘을 보니 금세 그칠 비가 아닌 듯했다. 해가 진 뒤 우리는 칠혹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외진 곳이라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승합택시를 부르기도 쉽지 않았다. 아내는 이미 옷가지와 카메라가 있는 가방이 젖지 않게 겹겹이 비닐을 덮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고생 끝에 낙

경치를 만끽하기는커녕 눈도 뜨기 힘들었다. 너무 젖어버린 신발에서는 절버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렇게 두어 시간을 달리자 온몸이 으스스 떨렸고 길 한복판에서 흠뻑 젖은 상의와 양말을 새로 갈아 신기까지 했다. 갈아입은 옷도 금세 다시 젖었지만 그저 앞만 보고 비를 맞으며 페달을 굴리는 수밖에 없었다.

구례에 있는 숙소로 도착했을 때는 밤 8시 즈음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쫘악 젖은 나와 아내를 본 숙소 사장님은 놀란 토끼눈을 하고 바라보셨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온 것이냐며, 묻던 사장님은 이내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따뜻한 차와 과일을 내어주셨다. 그리고선 젖은 옷과 신발을 가져가 탈수를 해주셨다. 인심 좋은 사장님 덕분에 내일은 젖지 않은 옷을 입고 자전거 여행을 이어갈 수 있겠다 싶었다.

샤워를 마치고 허기진 배를 채우러 숙소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다. 한때 ‘물 반 재첩 반’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재첩이 흔했던 섬진강 근처였기 때문에 재첩국과 재첩회를 시켰다. 따끈한 국물을 한 입 떠먹으니 온몸이 나른해졌다. 처음 먹어보는 재첩회도 맛이 일품이다.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맛에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켰다. 속을 든든하게 채우고 숙소로 돌아와 이불 위에 눕자마자 아내와 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잠에 꿀아떨어졌다.



아찔하지만 달콤한 추억

전날과 달리 둘째 날은 종일 땀벌에서 자전거를 타야 했다. 아침 일찍 출발해야 그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데 출발 시간이 늦었다. 전날 온종일 비를 맞고 자전거 바퀴를 굴렸던 탓에 피로가 썩 가시지 않았던 터다. 더위에 지친 아내는 차라리 비를 맞는 게 낫겠다고 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누구나 들어봤을 흥겨운 노래 가사 속 섬진강길을 달려왔고, 그 화개장터에서 점심을 먹었다. 맛집도 나름 조사했지만 이렇게 더운 날엔 에어컨이 뽕뽕한 식당이면 다 맛집인 듯했다. 밥을 먹고 다시 또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달려 배알도 수변공원에 도착해 중주를 마쳤다. 아내와 나는 눈을 마주치고 말없이 웃었다. 왜 그렇게 비를 맞고,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하나 싶다가도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공기를 마시며 싱그러운 경치와 마주하면 또 다시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게 된다. 🌿



섬진강 자전거길 (약 150km)





우리회사는 공급업체와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구매부문선정 우수 협력업체 인증 제도를 2019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선정된 우수 협력 업체에게는 1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수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우수 협력업체 인증에 이름을 올린 기업을 순차로 소개한다.

01

**[설계 감리 · 공사
관련 용역]**
 분야



대아공조플랜트

체계 · 효율성 갖춘
 신속한 위기 대응

“에쓰-오일의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화된 기술과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성장과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아공조플랜트 안희재 소장

대아공조플랜트는 냉난방 공조설비 분야에서 25년 이상 기술을 축적하며 기업 역량을 발휘해왔다. 냉난방 기기, 공기조화기, 시스템 에어컨디셔너, 산업용 냉동기, 스크류 냉동기, 냉각탑, 냉온수 유닛, 전산실용 항온항습기와 공조용 덕트 설비, 건물 양압 설비 등 영역을 두루 포괄한다.

우리회사는 대아공조플랜트와 1995년부터 울산공장 냉난방 공조설비 구축과 수리 작업으로 협업해왔다. 전동기 기동·제어(MCC)와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등 설비 구축과 관리를 맡아 365일 상시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점검 상황이 발생했을 때 4시간 이내 현장 도착을 원칙 삼아 정확한 진단으로 문제점을 해결한다. 고장률 최소화에 역점을 둔 가운데 부품 체계화로 장비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해 어떤 문제 상황에도 신속하게 정상 가동을 이루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7월 [축매·화공약품] 날코코리아
[기계·장치] 존크레인코리아
[배관] 흥은철강

8월 [전기·계장] 엘씨코리아
[실험기기] 다솔인스트루먼트
[기타자재] 엘씨유니텍

9월 [설계·감리·공사 관련 용역] 대아공조플랜트
[일반용역] CJ프레시웨이

02

[일반용역]
분야



CJ프레시웨이

고객 소통으로
맞춤형 급식 제공

“에쓰-오일 협력업체 중
일반용역 부문에서
수훈을 인정받아
기쁩니다.

진심 어린 소통으로
신뢰를 더해가며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와
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CJ프레시웨이 손주영 과장

1988년 설립된 CJ프레시웨이는 현재 식자재 유통과 단체급식 분야의 사업을 영위한다. 식자재 유통 사업 부문에서는 상품 공급과 메뉴, 조리, 서비스, 위생 교육·컨설팅, 전산 인프라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지원을 포함해 식당 운영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단체급식 사업의 경우 산업체, 오피스, 병원, 골프장, 컨디션 등 전국 550여 곳에서 구내 식당과 식음 사업을 위탁운영 하면서 고객과 업장에 알맞은 메뉴를 제공한다.

우리회사는 2017년 울산공장 내 식당 위탁운영을 통해 CJ프레시웨이와 인연을 맺었다. 이동급식이 필요한 공장 내 52곳에 적온배식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고객 서비스의 접점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교대근무자를 위한 메뉴 고안, 이벤트 식단 제공 등을 시행하면서 식품 전문 기업으로서 보유한 탄탄한 제품군을 급식에 적용했다. 특히 상생의 연결고리로서 지역 우수 농산물 계약 재배로 산출되는 신선식품을 급식에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가치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귀중한 제안 보람찬 보상

우수제안 추가보상 시상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실행력을 앞세운 우수제안 추가보상 제도의 수혜자들이 줄지어 배출됐다. 지난해 첫 수혜 대상이 선정된 뒤 꼭 1년 만이다.

우리회사는 8월 28일 울산공장에서 2020년 우수제안 추가보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제안 총 3건에 걸쳐 제안자·실행자 6명에게 보상금 총 3천만 원을 전달했다. 후세인 알 카타니 CEO는 보상을 거머쥔 직원들에게 직접 시상하면서 내실 있는 아이디어와 탁월한 실행력으로 성과 도출에 이르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 치하했다.

지난해 처음 가동된 우수제안 추가보상 제도는 전사 제안제도에 기반한 보상제로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제안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직원 누구나 우수한 제안으로 활발하게 소통해 회사 수익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 장치다.

우수제안 추가보상은 연간 유형효과가 1억 원 이상인 제안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3년간 유형효과 1%를 1천만 원 한도로 제안자와 실행자에게 보상한다. 대상 선정은 6월 말 기준으로 연 1회 실시된다.

올해는 이용우 사우(RFCC1공정팀)의 제안(제2감압증류공정 펌프 개선을 통한 손실 절감 방안)을 비롯해 신현호 사우(TC2C팀)가 제안하고 조재혁 사우(공정혁신팀)가 실행한 건(제2감압증류 공정 가열로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권길상·배지현 사우(RFCC1공정팀)가 공동 제안하고 김호원 팀리더(Alkylation1팀)와 권길상 사우(RFCC1공정팀)가 공동 실행한 건(중질유분해공정 운전 개선 방안) 등 총 3건이 보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제안별로 최대 보상금 1천만 원을 획득한 이들 제안은 최소 30억5천만 원(3년간 유형효과 기준)에서 최대 147억8천만 원(2년간 실제 유형효과 기준)에 이르는 수익개선 효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됐다.

알 카타니 CEO는 제안별 최대 보상금인 1천만 원을 제안자와 실행자에게 시상하며 “우리회사의 가장 큰 자산은 직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개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실한 응원 꾸밈한 성장

순직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전달



팬데믹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서도 우리회사는 나눔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지원활동으로 변함 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8월 26일 본사 창의소통라운지에서 열린 순직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전달식을 통해 장학금 총 2억1천만 원을 전했다.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혜 학생들을 배제한 가운데 류열 사장과 김홍필 소방청 차장,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치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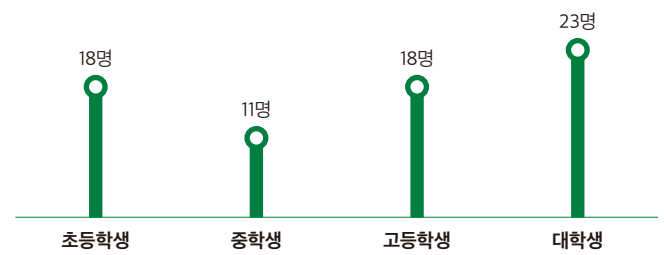
올해 전달한 학자금은 순직소방관 유자녀 70명에게 300만 원씩 지원된다. 이로써 우리회사는 올해까지 15년 동안 순직소방관 유자녀 1천329명에게 장학금 총 38억여 원을 전달했다.

우리회사는 2006년부터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순직소방관 유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왔다. 특히 수혜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중·고교를 거쳐 대학교 진학 뒤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해 지원 실효를 챙기고 있다. 유자녀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해 어엿한 사회 일원으로 꾸밈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함이다. 

소방영웅지킴이 후원 현황(2006년~현재)

순직소방관유족위로금	63명	18억9천만 원
순직소방관유자녀학자금	1천329명	38억7천만 원
올해의 소방영웅시상	104명	11억6천만 원
공상소방관치료비 지원	336명	6억6천만 원
소방관 휴캠프	980명	7억 원

2020년 순직소방관유자녀학자금 지원 현황





주유소 날개 다는 새 서비스

계열주유소 거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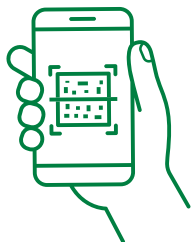


우리회사가 공유 전기자전거 일렉클(elecle)과 제휴해 주유소 거점의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 유휴 공간에 전기자전거 주차, 대여와 반납을 위한 '일렉클존'을 운영하고, 배터리 충전과 정비 등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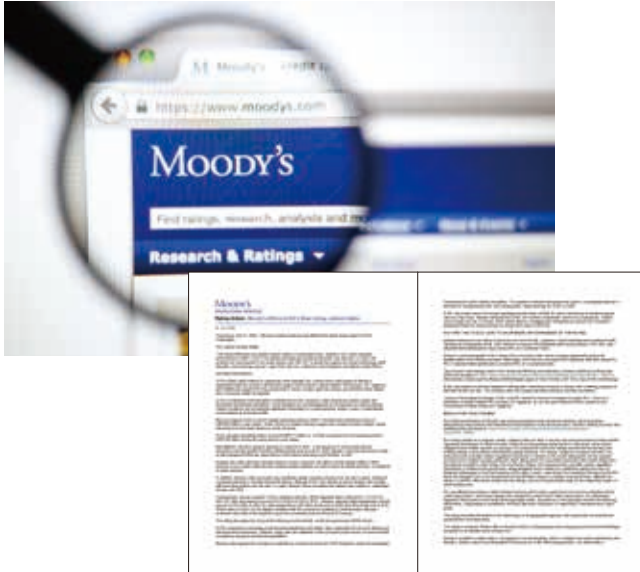
8월 중순부터 구도일주유소 두꺼비점(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에서 일렉클존 시범 운영을 시작한 우리회사는 추후 세종시, 부천시, 김포시 등으로 서비스 제휴 지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리회사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 일렉클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주)나인투원과 적극적인 협업을 펼쳐 새로운 사업 기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고객 이용 편리성과 정보기술 발달, 공유 경제의 성장으로 공유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최근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회사는 이용고객 15만 명을 보유한 일렉클과 손잡고 주유소 기반의 상생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리회사는 주유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편의를 위해 정보기술 기반의 스마트 무인편의점, 이커머스(e-Commerce) 물류거점, 비대면 셀프세차 등 다양한 유외 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



NEWS



무디스 국제신용등급 '안정적' 유지

우리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난항에도 국제신용등급을 유지했다. 8월 4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우리회사가 기존에 획득한 기업신용등급 'Baa2'를 재확인했으며, '안정적(Stable)'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에스-오일의 신용등급 재확인과 ‘안정적’ 전망은 올해 부진한 영업실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1~2년 동안 설비투자과 배당금이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적이 회복되면 2021~2022년 에스-오일의 신용 지표가 현재의 독자신용도를 지지하는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리회사는 1단계 석유화학 프로젝트인 RUC-ODC를 통해 설비 고도화와 석유화학으로의 사업 다각화, 재무 안정성을 고려한 배당, 비용·투자비 지출 최소화 등 신중한 재무정책을 유지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재무 구조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영업성과 우수지사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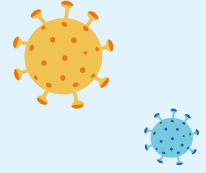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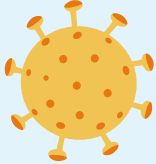
국내영업본부가 8월 13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2분기 영업성과 우수지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아산·광주·남양주·구미지사가 성과우수 지사로서 수상하고, 성과개선 지사로 원주지사가 상을 받았다. 판매·유통망·수익성·회사정책이행도 등에 기초한 영업성과 평가를 통해 분기별 상위 4개 지사가 우수지사 반열에 올랐다. 아울러 성과개선 지사는 전 분기 대비 영업성과 개선 수준에 따라 선정됐다.

국내영업본부 산하 임직원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불굴의 도전으로 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서로에 대해 격려했다. 수상의 보람을 거머쥔 각 지사에는 본부장 명의의 치하 서신과 함께 상패·포상금이 전달됐다.



슬기로운 하루 일과 사회적 거리두기

자료: 질병관리본부



함께 지켜요!
3행(行)·3금(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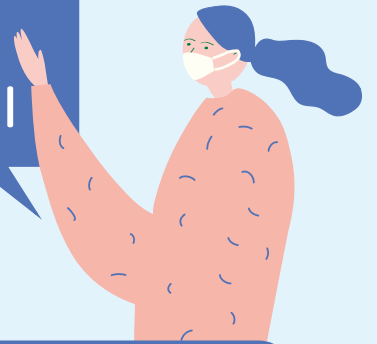
3행(行)

- ▶ 실내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 ▶ 다중이용시설에서 최소 시간 머무르기
- ▶ 사람 간 거리는 2m 이상 유지

3금(禁)

- ▶ 발열·호흡기 증상 있으면 외출하지 않기
- ▶ 밀폐·밀집·밀집된 장소와 시간대 피하기
- ▶ 침방울 튀는 행위, 신체접촉 하지 않기

휴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AM

10:00

가볍게 운동하고 싶을 때
체육시설 이용 대신 집에서 홈 트레이닝

PM

12:00

친구야 모이자~
친구·동료모임은 각자 집에서
PC나 휴대폰 통해 비대면으로

3:00

주말 쇼핑은 클릭!
쇼핑은 매장 방문보다 온라인 주문 통해 구입

6:00

외식이 필요할 때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는 대신
포장·배달 이용

SEPTEMBER 2020

【보직변경】

8.26

김서은(일반사무직3급.공정혁신팀)→기계설계팀

8.28

김종민(계장.제주저유소)→수송팀(공장파견)

9.1

이영열(1급.인사팀리더)→노사협력팀리더
박성훈(1급.노사협력팀리더)→인사팀리더

9.14

이충훈(2급.수송팀-배차센터)→수송팀(본사)
조원정(계장.인천저유소)→제주저유소

【정기 Job Rotation】

9.1

노운택(1급.감사1팀)→감사2팀(감사위원회지원파트리더)
권창환(2급.경영기획팀)→경영관리팀
백종훈(2급.경영관리팀)→업무팀
이충훈(2급.HR기획팀)→부동산관리팀
김은정(2급.인사팀)·남상덕·김병기(4급.인사팀)→HR기획팀
정기수(2급.Polymer&Intermediate운영팀)·김두현(4급.용도개발/기술지원팀)→Chemical기술개발기획팀
김영준(2급.용도개발/기술지원팀)→OlefinDownstream사업기획팀
박재홍(2급.자금운영팀)→세무팀
송영은(2급.IR팀)→구매팀
김수호(3급.정비계획팀)→기계설계팀
김병주(3급.HR기획팀)·김승배(3급.홍보팀)→인사팀
김태준(3급.총무팀)→홍보팀
이재훈(3급.부동산관리팀)→총무팀

이선화(3급.업무팀)→BasicChemical운영팀
김태윤(4급.Hydrocracker공정팀)→RFCC1공정팀
김경진(4급.RFCC1공정팀)·최승범(4급.생산조정팀)→생산최적화팀
김태형(4급.RFCC2공정팀)→시설투자기획팀
신동진(4급.연차보수팀)·김태균(4급.계전설계팀)·김승수(4급.투자공사팀)→DefectElimination팀
이석진(4급.기계설계팀)→연차보수팀
이창섭(4급.투자공사팀)→생산구매지원팀
백지영(4급.DefectElimination팀)→계전설계팀
강찬규(4급.DefectElimination팀)→정비계획팀
김병훈(4급.생산최적화팀)→생산조정팀
정하영(4급.경영관리팀)→환경팀
조한길(4급.환경팀)·장준석(4급.아로마틱영업팀)→경영기획팀
노현서(4급.Chemical기술개발기획팀)→Polymer&Intermediate운영팀
전충수(5급.PP영업팀)→PO&Intermediate영업팀
안효빈(5급.PO&Intermediate영업팀)→PP영업팀
이정호(5급.BasicChemical운영팀)→아로마틱영업팀

9.14

홍영목(2급.수송팀-본사)→수송팀(배차센터)

12.1

황대진(3급.아로마틱공정팀)→RFCC1공정팀
양해나(3급.관리회계팀)→프로젝트금융팀
민춘기(4급.정유/유회공정팀)→아로마틱공정팀
이용우(4급.RFCC1공정팀)→공정자동화팀
김경호(4급.공정자동화팀)→기획분석팀
안국문(4급.기획분석팀)→에너지관리팀
지용희(4급.생산조정팀)→정유/유회공정팀
로철권(4급.에너지관리팀)→생산조정팀
김상범(4급.프로젝트금융팀)→관리회계팀

【퇴직】

8.26

전효정(일반사무직1급.원주지사)

8.31

김순용(대리.PP팀)

【결혼】

8.22

김대환(전주지사) 딸

8.23

한봉호(탈황1팀) 딸

8.29

오세봉(VDU팀)
김상범(프로젝트금융팀)
지현성(생산조정팀)

9.5

변치규(탈황3팀)
김현재(PX1팀)
장형준(원유용선팀)
전학준(RFCC2공정팀)

9.12

송광오(화학생산본부) 아들

9.13

왕희석(장치2팀)
진승오(투자공사팀)
김건우(업무팀)
홍대환(안전대응팀)

11.1

윤동훈(PP팀)

【 부음 】

8.10

김효웅(탈황1팀) 부친
김재완(제품운영3팀) 조모

8.11

장경환(품질관리팀) 부친
남현진(Alkylation1팀) 빙모

8.14

정우철(창원지사) 모친

8.15

손성도(아로마틱1팀) 빙모

8.16

황윤섭(유회팀) 빙부

8.23

최태수(품질관리팀) 모친
심규신(제품출하팀) 모친

8.25

김진효(PO/MTBE팀) 조부

9.3

이봉주(계기1팀) 외조부

9.4

김형수(ERU팀) 외조부

9.5

송성진(탈황3팀) 부친

9.6

전영민(Alkylation1팀) 빙부



NOTICE

사보 <S-OIL>에 정다운 추억을 남기세요

임직원 사연을 에세이로 기록해 드립니다.
편집실에 글과 사진을 보내시면
어엿한 콘텐츠로 게재됩니다.
글은 분야와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격의 없이 대강 작성한 글도 충실한
윤문을 거칩니다.
송부하신 글과 사진이 실제 지면에 실리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주제

#나홀로 또는 가족 여행기
#자녀 또는 부모님 등 가족의 편지
#각종 체험기·관람기
#동기 또는 선후배 모임 후기
#동호회 활동기
#부서 또는 개인 업무 관련 사연
#소소한 개인 일상 또는 단상 소개 등

글

워드문서 기본설정 기준 약 0.5~1면

사진

사진 4장 이상 원본파일 필수 제출

기한

연중 상시 모집

송고

sabo@s-oil.com



독자마당

사내보 <S-OIL>은 사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지면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문의: sabo@s-oil.com



<언제나 건강> 호흡기 질환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호흡기 관리를 각별히
생각해보게 됐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영준(탈황1팀)



<이달의 활력평가> 천문

요즘 현대판 우주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관련 퀴즈가 재미있네요.
하창원(계기2팀)



<간이역 산책> 화랑대역

국외 여행이 어려운 때에 국내 여행지를 접해
좋았습니다. 딸들과 함께 꼭 가보고 싶습니다.
김대기(탈황1팀)

이달의 퀴즈

Quiz 01. 생활안전 아이콘

추석을 앞두고 올바른 성묘길 안전 수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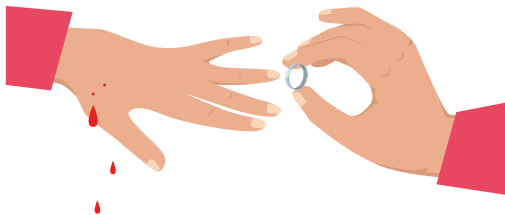
①

어두운 의상으로 벌 공격 예방



②

뱀에 팔 물리면 시계와 반지 즉시 제거



Quiz 02. 즐거운 두뇌 훈련

<보기> 그림처럼 바로 놓은 단어를 회전시킨 것처럼 거꾸로 써보시오.

신문 → 곰구

글자를 뒤집어 오른쪽에 써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
사계절
아름다운
금수강산

*자료 삼성서울병원 뇌신경센터 '뇌 훈련 퀴즈'



<터벅터벅 소도시> 벨기에 플랜더스
 코로나19로 여행을 못 가는데 기사로 대리 만족을
 느꼈습니다. 유용한 내용을 꼭 챙겨봅니다.
 김순향(방동제일주유소, 대전시 유성구 계백로)



<지식 한 뼀> 적정기술 - 라이프스트로
 지구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편하고 혁신적인 기술인 것 같습니다.
 김남철(PO/MTBE생산팀)



<두런두런 이야기방> 태화강~대왕암 산책
 아름다운 강과 바다를 보니
 힘든 시기를 잠시 잊게 되네요.
 양동한(생산회계팀)

지난호 퀴즈 정답 · 당첨자

Quiz 01.

생활안전 아이콘

어린이 물놀이 안전수칙 중 틀린 것은?

→ 정답. ① 벗기 쉬운 슬리퍼



계곡, 강가, 바닷가에서 물놀이할 때는 잠금 장치가 있는 샌들을 착용해 부상 위험을 예방한다.

*자료 질병관리본부

블루투스 스피커

윤오영(VDU팀)
 이성진(제품운영3팀)
 윤연재(안전대응팀)
 임예지(회계팀 임태순 사우 가족)

Quiz 02.

즐거운 두뇌 훈련

지갑에 10원, 50원, 100원짜리 동전들이 가득하다.

다음 조건에 맞춰 각 동전이 몇 개씩 필요인지 맞춰보시오.

(추론·계산 과정을 통해 전두엽과 두정엽을 활성화시키는 훈련)

	10	50	100
① 동전 6개로 360원 만들기	1	3	2
② 동전 5개로 310원 만들기	1	2	2
③ 동전 8개로 370원 만들기	2	5	1
④ 동전 11개로 680원 만들기	3	3	5
⑤ 동전 9개로 670원 만들기	2	1	6
⑥ 동전 12개로 500원 만들기	5	5	2
⑦ 동전 11개로 540원 만들기	4	4	3
⑧ 동전 10개로 590원 만들기	4	1	5

휴대폰 보조배터리

박동환(PX2팀)
 옥해정(품질관리팀 옥창화 사우 가족)
 유동수(부동산관리팀)
 손우석(원주지사 손승모 가수 가족)



올해 사보 표지는 핵심가치를 통찰해 볼 수 있는
동화 이야기를 소재로 그려나갑니다.

